

승승광주 FC... 야구 실망 팬심 축구가 위로



광주FC의 임민혁(왼쪽)이 지난 1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2019 K리그2 28라운드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부천FC에 1-0 승... 2위 부산과 승점 8점차로 벌려
하칭요 후반 9분 결승골... 2경기 연속 만점 활약
박진섭 감독 "스리백 전략 통해... 끝까지 방심은 금물"

광주FC의 1위 질주에는 이유가 있다. 광주가 지난 1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K리그2 28라운드 부천FC와의 경기에서 후반 9분 터진 하칭요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앞선 아산과의 홈경기에서도 하칭요의 선제골을 앞세워 3-1 승리를 장식한 광주는 연승을 달리며 1위 자리를 굳게 다졌다. 2위 부산 아이파크가 28라운드 대전시전과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광주와의 격차는 8점 차까지 벌어졌다. 강해진 광주가 만든 결과다. 광주는 지난 2일 26라운드 안산 원정에서 엄원상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2 패배를 당했다. 득점 1위 펠리페까지 이날 퇴장을 당했고, 이후 거

친 행동으로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광주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A매치 휴식기를 보냈다. 또한 15일 경기를 치르고 3일 만인 18일 다시 그라운드에 올라야 하는 뼈뺀 일정이 기다리면서 이번 홈 2연전 결과에 관심 쏠렸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먼저 펠리페의 공백을 잇게 한 하칭요의 만점 활약이 있었다. 아산전에서 전반 41분 선제골을 넣으며 3-1 승리에 앞장섰던 하칭요는 부천과의 경기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코너킥 상황에서 뒤에 흐른 공을 쫓아 달려든 하칭요는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시원한 골을 만들

었다. 그리고 경기가 1-0 광주의 승리로 끝나면서 하칭요는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펠리페가 빠졌지만 하칭요는 윌리안과 좋은 호흡을 과시하면서 '브라질 듀오'의 힘을 보여줬다. 이틀 만에 다시 치른 경기에서도 탄탄한 선수층이 구성됐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중형무진 그라운드를 누빈 김주공과 U-22대표팀에 다녀온 뒤 자신감을 더한 임민혁 등 '기대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연승에 힘을 보탤다. 박진섭 감독의 스리백 구상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등 광주는 연승과 함께 다음 승리를 위한 다양한 옵션까지 마련했다. 착실하게 준비한 전략이 실전에서 통했다는 점도 반갑다. 박진섭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하칭요에 대해 "워낙 성실하고 슈팅이 좋은 선수다"며 "그런 찬스가 오면 넣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골을 넣어서 제 역할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하칭요도 "훈련을 할 때 항상 감독님께서 코너킥

상황에서 리바운드 공을 신경 쓰라고 하셨다. 훈련했는데 마침 기회가 되어서 골을 넣었다"고 골 상황을 이야기했다. 부산의 거센 추격에도 광주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승점을 쌓아가면서 승리의 꿈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박진섭 감독은 "방심은 금물"이라며 결실의 순간까지 고삐를 죄겠다는 각오다. 박진섭 감독은 "우리 팀이 올해는 어떤 선수가 뛰어도 똑같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선수층이 두꺼워졌다"며 "1위가 결정되는 날까지 여유는 없다. K리그2는 끝까지 팀이나 실력 차이가 없어서 언제든 5연승 5연패를 할 수 있다. 방심하면 안 된다.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하칭요

손흥민이 간다! 여우 잡으러

EPL 토트넘, 21일 레스터 시티 원정 ... 손, 통산 9경기 5골 3도움 맹활약

손흥민(토트넘)이 이번 주말 '여우 사냥'에 나선다. 손흥민의 상대는 'The Foxes' (여우)라는 애칭을 가진 레스터 시티다. 토트넘은 21일(한국시간) 오후 8시 30분 영국 레스터 키파워스스타디움에서 레스터 시티와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원정경기에 나선다. 앞서 손흥민은 19일 펼쳐진 올림피아코스(그리스)와 2019-2020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1차전 원정에서 후반 28분 투입돼 추가시간 포함 22분을 소화했다.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로테이션 정책'을 예고했다. 로테이션 정책에 따라 손흥민은 주말 레스터 시티전에 대비해 짧은 시간 그라운드를 누웠다. 이날 토트넘은 올림피아코스와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주말 토트넘과 맞붙는 레스터 시티는 2015-2016시즌 창단 132년 만에 최상위 리그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영국 베팅사이트가 평가한 레스터 시티의 우승 확률은 5000분의 1로 동전을 던져서 옆으로 서 있을 확률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레스터 시티는 클라우드 로사리오 감독의 지휘하에 공격수 제이미 바디와 지금은 첼시 소속인 은 골로 강태 등의 활약에 힘입어 우승 동화를 썼다. 반면 토트넘의 리그 우승 기억은 가물가물하다. 1992년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으며, 프리미어리그

전신인 풋볼 리그 퍼스트 디비전에서 1950-1951시즌과 1960-1961시즌 두 차례 우승이 전부다. 이번 시즌 레스터 시티(골득실+2)는 이번 시즌 토트넘(골득실+5)과 똑같이 정규리그에서 2승2무1패(승점 8)를 기록 중이다. 레스터 시티는 토트넘(3위)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4위·골득실+4)에 골득실에서 밀려 리그 5위를 달리고 있다. 축구 팬들은 유독 레스터 시티에 강한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다. 손흥민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개인 통산 9경기에서 5골 3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정규리그 7경기에서 4골 2도움으로 경기당 0.85의 공격포인트를 올리는 등 순도 높은 활약을 펼쳤다. 또 지난 시즌 레스터 시티와 두차례 대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한 바 있다. 레스터 시티는 이번시즌 개막 4경기 무패(2승2무)를 달리다 지난 5라운드에서 맨유에 밀리며 3점차로 추락했다. 따라서 올림피아코스전에서 체력을 비축한 손흥민은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이어 리그 2경기 연속골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손흥민은 유럽 1부리그 무대에서 개인 통산 118골로 차범근이 보유한 한국인 유럽 1부 리그 최다 득점(121골)에 3골 차로 바짝 쫓고 있다.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아쉽게 헤트트릭을 놓친 손흥민이 최근 리그 기세를 이어간다면 토트넘 소속으로 첫 헤트트릭 달성과 함께 한국인 유럽무대 최다득점 타이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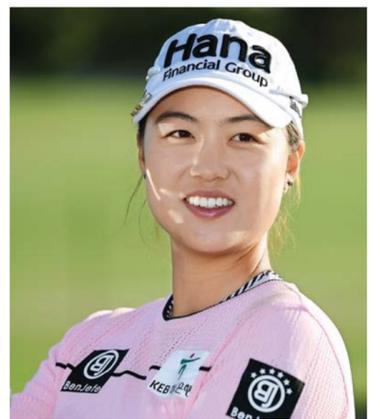
박세리·소렌스탐·오초아... 골프여제들 양양서 샷 대결

21일부터 '설해원 레전드 매치'
박성현·톰프슨·쥘타누간 등 출전
상금, 강원 산불 이재민 돕기 기부

여자골프의 전·현직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번 주말 강원도 양양에서 샷 대결을 펼친다. 21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양양 설해원에서 열리는 '설해원 레전드 매치'에는 박세리(42) 도쿄올림픽 골프 여자 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안니카 소렌스탐(49·스웨덴), 줄리 잉크스터(59·미국), 로레나 오초아(38·멕시코) 등 한때 세계 여자 골프를 평정했던 '전설'들이 출전한다. 또 현역 선수들로는 박성현(26)과 에리아 쥘타누간(24·태국), 렉시 톰프슨(24·미국), 이민지(23·호주)가 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대회는 첫날인 21일에는 은퇴 선수와 현역 선수가 '2인 1조'를 이뤄 포스트 대결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22일은 현역 선수들이 매 홀 결린 상금을 놓고 경쟁하는 스킨스 게임이 열린다. 은퇴 선수들은 22일 시타를 하고 스킨스 게임 상금은 대회 종료 후 강원도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현역 시절 거의 매 대회 우승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박세리 감독과 소렌스탐의 '추억의 명승부'에 팬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특히 2016년 은퇴 이후 거의 클럽을 잡은 일도



박성현



이민지

없다면 박 감독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 모처럼 훈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포스트 매치의 팀 구성은 팬 투표로 정해졌는데 박 감독은 톰프슨과 한 조를 이뤘고, 소렌스탐은 박성현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또 잉크스터-이민지, 오초아-쥘타누간이 한 조를 이뤄 첫날 포스트 우승을 놓고 경쟁한다. 이번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드라이버샷 평균 비거리 4.5위의 박성현, 톰프슨의 장타 실력에 박세리, 소렌스탐의 노련미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가 우승 경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역 시절 한국 선수들의 우승 감독을 자주 가로막았던 오초아와 현재 L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들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 중 한 명인 쥘타누간이 이룬 팀에도 눈길이 간다. 박세리 감독은 "선수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긴장감도 생기며 함께 팀을 이루게 된 톰프슨과 어떤 플레이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에 대한 전략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21일 오후 12시 30분, 22일에는 오후 12시 20분부터 SBS에서 생중계된다. /연합뉴스